

대구주보

부활 제3주일
2020. 04. 26. (가해) 제2211호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루카 24,31)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안 와일드 렌, 1640년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헤미티지 박물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하느님을 향하게 해 주셨습니다



산격본당 주임 | 김울석 마태오 신부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 주셨습니다.”(1베드 1,21)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고 승리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수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엠마오를 향해가는 두 제자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을 믿으면서도 때로 우리는 믿음과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들은 길(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영광의 길이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주님의 수난과 죽음은 큰 상실감을 주었고 이로 인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돌아섭니다. 제자들의 그 모습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인임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며, 주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을 뿐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낮은 나그네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면 짐작이 갑니다. 믿었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듯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시면서도 주님은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다시 한번 알려 주십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 주듯, 절망 속에 희망을 샘솟게 하듯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이제 그들은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서는 그들의 발걸음에는 불신과 절망이 사라지고 믿음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들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들으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들려주십니다. 보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보여주십니다. 지금의 순간이 절망처럼 느껴지고 어둠이라 느껴지지만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그 발걸음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희망이 당신을 향하게 해 주소서! **✠**

사소한 일에 목숨 걸기 - 가장 큰 방해들 : “고집”

교구 소림상담소장 | 김종섭 토마스 신부

우리는 지난 글에서 ‘착각’에 대해 나누었습니다.¹⁾ 착각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고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착각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감정, 심리-정서적인 면에서는 투사가 주요 원인입니다. 투사를 하고 착각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고서는 자신의 생각, 주장, 경험만을 옳다 여기고 고집 피웁니다.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고 성질부립니다.

얼마 전 유행하던 라떼 이즈 홀스(‘latte is horse, 라떼는 말이야.’)라는 신조어가 생각납니다. 이 말은 상황과 사람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나 때는 말이야~’라며 자신의 생각과 방식에 대해 고집 피우는 것을 풍자한 말입니다. 이런 태도 이면에는 ‘그거 내가 해봤는데~! 살아봐라 그렇게 안 된다~ 부부라는 건 말이야. 신자라면 이런 모습이지. 신부라면, 수녀라면 이래야지.’ 하는 자기 투사와 착각에서 비롯된 고집이 들어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고집을 피우게 되면 반드시 충돌이나 갈등이 생깁니다. 아니면 반대로 사이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져버립니다. 부부관계 그 자체보다 자기 고집과 주장이 더 중요하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계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또한 고집은 우리를 맹목에 빠뜨립니다. 맹목은 우리가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을 좁아지게 하지요. 여유로움을 상실하게 하고 성급한 마음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불안해집니다. 심리 악순환 모형이 되어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립니다. 이 상태가 되면 관계들은 파탄 나고 우리의 영혼은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얼른 깨진 평화를 되찾고 선순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마태 16,24)”라고 하셨으니 자신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은 위대한 사랑(요한 15,13 참조)도 있겠지만 그전에 사소한 것에도 죽자고 달려드는 ‘내 고집’부터 내려놓고 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 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루카 7,32)” 사소한 것에 죽자고 달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

1) 본 원고는 1회 차(1월 5일자 주보)부터 이어지는 연속적인 글입니다. 앞의 글들과 함께 읽으시면 좀 더 나은 나눔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신약성경 전체를 그림으로 풀어 낸 복음묵상집

요즘 미사가 중단되면서 복음을 읽고 묵상하며 주일을 보내는 신자들이 많다. 이 시기에 그림으로 복음을 묵상해 보면 어떨까? 우리 교구 신자들에게는 지난 2017년과 2018년도 대구주보 표지 그림으로 익숙한 정미연 소화 데레사 작가가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은 개성 있고 아름다운 화풍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정미연 작가와 그동안 교회 안팎으로 따뜻한 글을 통해 감동을 주었던 서울대교구 허영엽 신부가 함께 펴낸 것으로 서울, 대구, 전주, 원주, 제주 다섯 교구의 주보에 게재한 그림을 모아 엮은 책이다. 그동안 정작가는 무려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전례력에 따라 가, 나, 다 해의 주일 복음 내용을 시각화하였는데 이를 한 권의 책으로 담은 것이다. 책 발간과 더불어 책과 동명의 개인전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이 서울·전주·원주에서 순회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사태로 현재는 모두 취소된 상태라 아쉬움이 남지만 이 책을 통해 복음을 그림과 글로 묵상한다면 훨씬 더 깊은 주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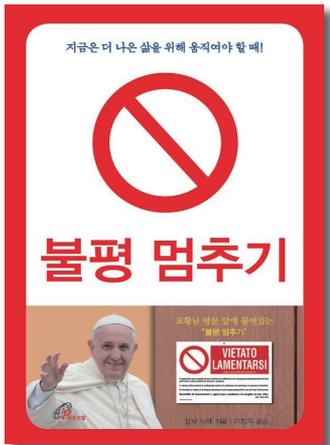
허영엽 글 | 정미연 그림
30,000원 | 기쁜소식사

불평 멈추기

불평을 멈추면 잠재력과 해결책이 보인다

우리는 살면서 뜻대로 되지 않거나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면 불평부터 앞세우곤 한다. 그러나 불평은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불평이 우리에게 희망을 앗아가기에 “불평하는 것은 나쁩니다.”라고 단언하면서 “주님은 어려운 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며 불평을 피난처로 삼지 말자고 권고한다.

이탈리아의 심리학자 살보노에가 펴낸 『불평 멈추기』는 불평의 원인과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멈추면 어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불평을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소개한다. 저자는 불평 멈추기를 단순히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불평을 쏟아내는 근본적인 뿌리를 찾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행동에 옮기도록 이끌어 준다. 또한 불평에 대한 특성과 선입견을 설명하여 사람들이 불평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불평 멈추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정적 감정에서 해방되고 자격지심을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존감으로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살보노에 지음 | 이창욱 옮김
232면 | 13,000원 | 바오로딸



박대식 빅토리노 (1812~1868년)

박대식(朴大植) 빅토리노는 경상도 김해 예동(현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시예리) 사람으로, 천주교에 입교한 이후로는 언제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 1868년의 박해 때 대구에서 내려온 포졸과 김해 포졸들이 함께 그의 집으로 몰려와 빅토리노와 그의 조카 박수연을 체포하여 김해 관아로 압송하였다. 당시 그의 조카는 아직 예비 신자였다.

김해 관아의 옥에서 빅토리노는 송 마태오와 박 요셉을 동료로 맞이하였다. 이후 그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뒤 3일 만에 대구로 압송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문초와 형벌을 받았지만, 끝까지 배교를 거부하고 신앙을 굳게 증거하였다.

대구 감사는 결국 빅토리노와 그의 동료들을 결코 배교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빅토리노는 조카와 동료 2명과 함께 형장으로 끌려가 참수형을 받았으니, 그때가 1868년 10월 12일(음력 8월 27일)로, 당시 빅토리노의 나이는 56세였다.

참수형을 집행한 뒤 감사는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명목 아래 그들의 머리를 높이 매달도록 하였다. 한편 빅토리노의 가족들은 그가 순교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대구로 와서 그의 시신을 찾아다 고향에 안장하였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사도 2,14,22-33	제 2 독 서	1베드 1,17-21	복 음	루카 24,13-35
화 답 송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알렐루야.				

이번 주 주일미사는
교구 총대리 장신호
요한보스코 주교님
집전으로 봉헌됩니다.

시청 천주교대구대교구 유튜브
라디오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자와 함께하는 미사가 중지된 지금, 미사를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cpbc 가톨릭평화방송 매일미사 방송시간

TV 월~토 06:00, 09:00, 12:00, 18:00, 21:20 | 주일 06:00, 09:00, 12:00, 18:00, 21:00

대구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매일 05:00, 18:05

(대구 FM 93.1MHz, 포항 FM 96.9MHz, 김천 FM 100.5MHz, 안동 FM 100.7M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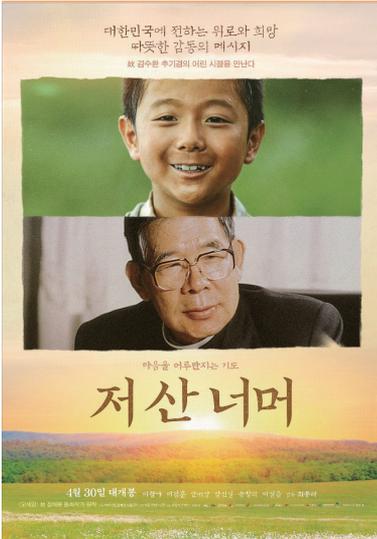
매일 05:00 이후 cpbc 홈페이지 · 모바일 앱 ·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노동절 담화

“내 어린양들을 돌보아라” (요한 21,15)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배기현 주교의 노동절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기도 영화

『저 산 너머』 4월 30일 전국 대개봉

코로나19 속 대한민국에 전하는 위로와 희망, 따뜻한 감동의 메시지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 故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만나다!

‘오세암’을 비롯해 주옥같은 작품들을 선보였던
故 정채봉 동화작가의 동명소설 영화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대구지역 영화관은 휴업중입니다.

대구 영화관 영업개시 후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서 상영 예정입니다.

가장 좋은 치료제는 사랑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성금 후원계좌 : 대구은행 041-10-003277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코로나19 피해 성금 접수현황은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스토리결혼정보
국내 / 국제 결혼 전문
안동 MBC, 아시아뉴스통신 방송 다수출연
21년 전통 ♥ 성혼시까지 맞선
대표 이현숙 수신다 (교육학 박사)
M. 010,6571,3385
T. 053,586,3220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황반변성
대표원장/의민박사 (현 연세대 외래교수) 박중원 (소시모)
안과전문의 장주현 (비비안나)·이무일
효성병원 옆 대동M타워 4,5,6층
☎ 053)626-8881~5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춤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_루카
보건복지부 지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T. 555-5520 죽전네거리 서암시장 맞은편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발아정형외과에서 발 건강의 싹을 틔우세요.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발목내시경, 족저근막염, 시간신경증, 평발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발발친구)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방향 500m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강판(지붕개량)
집수리 및 인테리어
김원(토마스) 010-5623-9001

암·재활·소화기·통증·건강검진
Happy! 신인빙원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대구기톨릭대병원 입구 ☎053)670-6000

SM 수맥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1588-5335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경식(보니파시오) 몬시뇰
2010년 4월 27일
- 이경만(요한) 신부
1923년 5월 1일
- 최호철(안토니오) 신부
2017년 5월 2일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성소 모임

일시: 매월 둘째주 토 15:00~일 13:00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본원
문의: (010)8353-2323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주일학교 여름 향심기도 캠프

일시: 7.20~22 / 7.28~30 / 7.31~8.2
8.4~6 / 8.7~9 / 8.11~13 / 8.14~16
장소: 평화계곡피정의집
신청: (010)3422-7587

교육 | 모집

가톨릭신학원 개강 취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톨릭신학원 1학기 강의 전체를
잠정 취소하였음을 알립니다.
문의: 660-5105

가톨릭문화관 생활영어 모집

초급: (화) 14:30~16:00
중급: (목) 17:00~18:30
문의: 476-6211

제주 성지순례 3일

일시: 6.5~7 / 6.16~18 / 7.23~25
장소: 제주성지 7곳 (성지해설)
주최: 서울대교구 가톨릭사회경제연합
문의: (064)805-9890

대구가톨릭치매센터ta 입소어르신 모집

2018년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6-2141 / 615-2141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후원자 모집

가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아이들
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해외 10개국 20개 지역에서
후원자 감사미사를 매월 봉헌합니다.
문의: 423-3008(내선 2번)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망설이는 환우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후원: 대구은행 143-05-000-837-8
문의: 650-3528~9

채용 | 안내

SOS프란치스카의집 영양사 채용

자격: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근무: 주말·공휴일 포함 주 5일 근무
문의: 사무행정팀, 986-2077~8
<http://www.sos-silver.or.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
(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2020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9

이 원 의 료 기
협합계-혈당계-당뇨소모성재료
휠체어-주사기-보호대-뜸-부항기
주열가-체온계-육창매트-환자용품
안마기-실버카-산소치료기-찜질기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니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2513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암검진
위·대장내시경·유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단입지역 7번출구

35년 경험과 기도로 치료하는
Since 1985
달성피부과
아토피·만성피부
보톡스·탈모
손재경(다미아노)·김민주(베치나)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2번출구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윤영희 성명외과
서울대학교 병원 협력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원장 윤영현 바오로
수성구 어린이회관 맞은 편(3호선 어린이회관역)
T. 053)766-2454 / 2455

치질수술 / 내시경(위·대장) / 건강검진
딱! 좋은 병원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병원장 위혁석사 /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노성규 마루스티노
하마의사의 **전강병원**
www.hangmuns.com 대구 북구 산격동 대우아파트 앞
T.053-959-7175 F.053-959-7577 P.010-9597-7175

제주 성지순례 3박4일
32만원, 각지역 공항출발,미사4회
성지 6곳, 신부님 동행, 특2급 호텔
167개 국내성지순례 1박2일
전국 15개 교구, 12개 코스 매일 출발
마르코 투어 010-5150-2625
오 완 수 (바오로)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외 이수운(소피아), 홍경홍(대전안드레아)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